



맹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 해수욕장 출현

국립수산과학원 모니터링 3일 기준 제주 출현율 9.3%
독성이 강한 야광원양해파리·유령해파리류 등도 관찰
본격 여름방학 시즌 무더위 지속 물놀이객 안전 주의

맹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벌써부터 해수욕장에 출현하면서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파리의 이상 번식도 우려된다.

6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보고’(6.27~7.3)에 따르면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출현율이 지난달 19일 1.9%에서 26일 7.0%, 이달 3일 9.3%로 급속히 늘고 있다. 출현율은 여업인모니터링요원 응답자 312명 중 해파리를 관찰한 사람의 수를 백분율화한 값이다.

이와 별개로 해수부가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주 접수된 노무라입깃해파리 8건 모두가 제주에서 이뤄졌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 중이며, 지난 3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해변에서도 발견됐다. 지난달 24일 도내 지정 해수욕장 대부분이 개장한 상태로 앞으로 도내 초·중·고교의 여름방학이 본격화되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 등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의하면 도

내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여 출동한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29건, 2022년 15건, 2023년 26건, 2024년 20건 등이다. 출동 건수를 포함해 실제 지난해 도내 해파리 쏘임 사고는 49건에 이른다.

현재로선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독성이 강한 야광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류가 제주 해역에서 저밀도로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최근 고수온 현상으로 빠르게 유입, 출현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 제주와 남해 연안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9일 제주해역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일찌감치 발령했다.

유입량이 많은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매년 5월 정도 때 동중국해 북부해역 쪽에서 성장하면서 해류를 타고 국내 해역으로 올라오며 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피서객에게도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제주 연안에는 관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 등 독성이 강한 해파리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맹독성 해파리가 벌써 해수욕장에 출현하며 물놀이객의 쏘임 사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삼양해수욕장에서 발견된 해파리 모습. 독자 송인혁씨 제공

여름철 폭염 속 벌집 제거 하루 52.7건 출동
최근 3년 7~9월 4742건 65.5%… 환자 이송도 집중

여름철 폭염 속 벌 쏘임 사고가 집중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총 1578건으로 2023년 같은 기간의 1497건보다 81건(5.4%) 증가했다. 특히 월별로는 ▷7월 404건→472건 68건(16.8%) ▷8월 685→715건 30건(4.4%) ▷408건→391건 17건(-4.2%) 등으로 7~8월 증가세가 뚜렷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벌집 제거 출동건수와 벌 쏘임 사고 이송환자 수도 대부분 7~9월에 집중됐다.

벌집 제거 출동건수는 7239건이며 이 가운데 7~9월 출동건수는

4742건(65.5%)으로 하루 평균 52.7건꼴이다. 벌쏘임 사고 이송도 191건이 발생했고 여름철 이송건수는 7월 36건(18.7%), 8월 60건(31.2%), 9월 28건(14.7%) 등 124건(64.6%)이다.

올해도 6월말 기준,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528건이다. 이 중 6월 출동 건수는 191건(36.2%)이다.

도소방안전본부는 벌 쏘임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 등 강한 향이 나는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계열 긴소매 옷을 착용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금탁기자

‘벚나무 벌목’ 제성마을 ‘시비(詩碑)’ 갈등

제주시, 지난 3일 마을회 반대 못 이겨 결국 철거

“어르신 마음의 위안”… “마을회 승인 절차 없어”

마을 역사가 담긴 벚나무를 벌목해 논란이 일었던 제성마을이 벚나무 벌목 관련 ‘시’가 담긴 비석 설치

를 두고 마을 내 갈등이 불거졌다. 4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제주시는 지난 1일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입구에 김수열 시인의 시 ‘제성마을엔 삼촌이 산다’가 담긴 시비(詩碑)를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비석은 마을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만인 지난 3일 철거됐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시가 지난 2022년 연도로 (신광로터리~도두)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제성마을을 도로변에 자라는 40여 년 수령의 벚나무들을 제거하면서 시작됐다.

제성마을은 1980년대 제주국제공항 확장 과정에서 구 몰래물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해 새롭게 뿌리 내린 곳이다. 한 주민에 따르면 당시 이주민들이 마을 설립을 기념하며 벚나무들을 심었다.

마을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벚나무가 제거되자 마을 주민 일부가 강경하게 반대했고, 마을 내 찬반이 갈리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석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담긴 ‘시’가 새겨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벚나무 벌목 당시 반대 민원이 많았고, 마을 내 갈등도 불거지면서 시 차원에서 화합의 취지로 시비 설치를 추진했다”면서도 “마을회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철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면신 제성마을 왕벚나무 대책위원장은 비석 철거를 두고 “벚나무 벌목 당시엔 제주시가 마을회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번엔 마을회 반대를 이유로 비석을 철거했다”며 “벚나무가 잘려나갈 때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느꼈던 그 애석함에 위안이라도 드리기 위해 비석이 꼭 설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마을회는 비석 설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영생 제성마을회장은 “마을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비석을 제주시에서 무단으로 설치해 항의했다”며 “시에 나오는 쫓겨났다는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마을 주민 다수가 아닌 소수 반대 주민만을 위한 비석 설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찬반 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제주시, 파크골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도입

낮 12시~오후 2시 사이

제주시는 하절기를 맞아 오는 9월 말까지 파크골프장 4곳의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파크골프장 기존 운영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를 하절기 일몰 시간을 감안해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휴식시간을 운영한다.

정기 휴장일은 기존과 동일하다. 제주생활체육공원은 목요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화요일, 미리내 파크골프장은 월요일,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월요일과 금요일이 휴장일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폭염특보 속 온열환자 속출… 21명 병원 이송

연일 폭염특보와 일주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온열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제주시에 월읍 어음리 소재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네팔 출신 한국인 여성 A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3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B할머니(87)가 자택 옆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할머니의 체온이 40℃였으며,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여서 온열질환에 따른 심정지로 추정된다. 다만, 다른 병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제주에서 열탈진, 열경련, 열사병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1명이다. 백금탁기자

한라일보

1층 임대

전용면적

36㎡

임대 문의

064)750-2530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땃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자처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